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먼저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24년 1월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안 남았네요. 한 해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중보로 인해 순적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땅 말레이시아와 말레이 무슬림 사역을 위해 변함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의 사역도 가능하지 않은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1. 빈 동지 가정

우리 가정은 2003년 3월에 6일에 27개월 된 예지를 안고 말레이시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우리에게 둘째 예인이를 주셨습니다. 두 아이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대학 공부를 위해 예지는 2019년에 말레이시아를 떠났고 지난 6월에는 예인이 또한 말레이시아를 떠나 한국에 가서 대학 입학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네 식구로 살다가 아이들이 떠나 집 안에 우리 부부만 남아 있어 허전함과 조용함이 집 안에 가득하네요. 그래도 좋은 점은 아이들에게 신경 쓸 일이 없어 아내와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도하러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보다 심심하지 않고 무엇보다 M들을 접촉 할 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다가갈 때에 아내가 있어서 훨씬 거부감 없이 그들이 우리를 맞아 주고 있습니다.

2.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니르라는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전도대상을 찾고 있는데 바닷가 나무 그늘 밑에 한 여자가 앉아서 지친 모습으로 바다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내 소개를 하고 왜 이렇게 혼자서 앉아 있는지 물어 보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르샤였습니다. 그런데 20세인 그녀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전에 자기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집에 누어만 있어서 병 간호 할 사람의 자기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병간호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잠시 나와서 바다를 보며 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죽음과 질병의 원인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며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은 복음을 다 듣고 나서는 다른 반응 없이 자기 엄마한테 가야 한다면서 일어나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를 떠나는 그녀의 뒷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들은 그녀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날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아내와 함께 다른 지방의 바닷가

에 갔습니다. 한참을 찾아 돌아다녀도 혼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여러 명이 있어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 명에게도 복음 제시를 못하고 그냥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아내와 이야기하며 집에 가려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데 한 남자가 바닷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나를 소개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펙이었고 나이는 38세였습니다. 7살과 5살 두 아이가 있었는데 현재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전에 담배를 켜는데 왜 담배를 피우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하람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죄의 결과로 죽음과 질병 그리고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식사 초대를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3. MBB 린형제

여전히 MBB 린형제는 사귀던 자매와 헤어진 이후 성경공부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찾아가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때에 다시 가정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리샤와 엘리사 자매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한 리샤자매는 계획대로 지난 10월 1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들 가정이 하나님의 때에 주께 돌아오고 리샤를 통해 남편인 노르 아이덤도 구원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늘 함께하던 언니 리샤자매의 결혼으로 혼자 남게 된 동생 엘리사자매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외로움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우리 가족은

대학원에 합격했던 예지는 우리가 등록금을 마련해 주지 못해 미국의 대학원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에서의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예지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학교 진학을 위해 기도하던 예인이는 주의 은혜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은 인천 송도 캠퍼스에서 1년을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인이가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 잘 적응하고 한국어로 공부해야 하는데 어려움 없이 학교 공부를 잘 따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생 동안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룸 메이트를 만날 수 기도해 주세요.

7.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이고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이다. 말레이 정부는 차별적 법안과 조치 등으로 이슬람교 전파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땅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중국계와 인도계 등 현지 교회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1907년 평양대부흥 같은 성령의 대부흥이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 말레이시아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레이시아 전국 마을 마을마다 MBB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3. 아내와 함께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교통사고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도할 영혼들을 예비해 주시도록.

4. 이 땅 말레이시아에 더욱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5. 10월 12일 결혼한 리샤 자매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남편인 누르 아이딤 형제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우울증으로 자해 소동이 있었던 동생 엘리사가 언니가 떠난 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6.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곳을 다니며 만나서 복음을 전한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때에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통해 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7. 우리 가족이 모두 영육간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딸 예지의 다음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3월에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할 아들 예인이가 일생의 동역자가 될 사람을 룸 메이트로 맞아 스트레스 없이 1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한 한국어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대학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